

‘빨치산’은 어떻게 ‘빨갱이’가 되었나:
1970-80년대 고통의 재현불가능성*
—이병주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박숙자**

1. 1970년대 ‘해방전후사’와 ‘빨치산’
2. 1970-80년대 이병주와 『지리산』
3. ‘빨치산’ 표상의 분열과 재구성
4. 빨치산(호모사케트)은 ‘고통’을 말할 수 있을까
5. 결론

국문초록

한국문학사에서 『지리산』(이병주)의 평가는 양분되어 있다. 해방 전 후사를 객관적으로 재현한 실록 소설이라는 평가와 반공주의 이념에 편승했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텍스트의 균열의 결과로 해석했다. 이는 『지리산』 출판 과정에서부터 드러난다. 이병주는 『지리산』을 1972년부터 『세대』에 연재한 후 1978년 원고의 일부를 출판한 이후 1981년 연재본 전체를 다시 재출판한다. 그리고 1981년 후속 이야기의 일부를 잡지에 게재한 다음 이태의 수기를 자료 삼아 6, 7권 내용으로 ‘증보’해서 다시 출판한다. 다시 말해 『지리산』은 연재본을 출판한 1981년 본과 증보한 내용까지 담은 1985년 본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6331)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조교수

로 나누어진다. 때문에 『지리산』의 완결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작품의 주제가 달라진다. 본고에서는 5권까지의 내용과 6, 7권 내용 간의 관점 차이에 주목했다. 특히 ‘빨치산’에 표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연재본에서는 유신 체제 하에서 ‘빨치산’을 일제 시대 독립운동으로 확장시켜 내면서 ‘빨치산’ 표상을 입체적으로 수용해 내지만 6, 7권에서는 ‘빨치산’이 ‘교조적’이고 ‘악랄한’ ‘빨갱이’이자 처벌되어야 하는 존재로 재현한다. 요컨대, 『지리산』은 해방전후사를 배경으로 ‘빨치산’ 표상을 통해 냉전 체제의 담론, 표상, 이념을 분절해 내지만 증보 과정에서 ‘빨치산’을 악랄한 존재이자 실패한 인생으로 통합시킨다. 결과적으로 『지리산』은 1970-80년대의 심연 속에서 반공주의/자본주의를 둘러싸고 진행된 분열과 길항의 과정을 보여주며 ‘빨치산’을 ‘적대적(빨갱이)’이거나 ‘무명(실패한)’ 존재로 재현한다.

(주제어: 해방전후사, 지리산, 빨치산, 빨갱이, 한국전쟁, 반공주의, 남부군, 수기, 호모사케트)

1. 1970년대 ‘해방전후사’와 ‘빨치산’

이병주의 『지리산』은 해방 전후의 역사적 격랑 속에서 청년의 비극적 전략을 재현한 역사소설이다. 이 소설은 1970년대 반공주의 체제 속에서 해방 전후사로 돌아가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실록 대하’ 소설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보다 주목할 것은 ‘빨치산’ 표상을 다르게 전유하는 양상이다.¹⁾ 한국 문화사 속에서 ‘빨치산’은 늘 예민한 소재

1) 이병주의 『지리산』은 1972년 9월호부터 1977년 8월호까지 총 60회 연재되다가 1978

였다. 빨치산을 재현하는 영화와 소설이 있었지만 대개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소재로 쓰였다.²⁾ 『지리산』이 연재된 1970년대에도 ‘지리산’과 ‘빨치산’ 그리고 ‘빨갱이’ 기호는 긴밀하게 인접한 채로 반공체제의 적대적 표상으로 등장한다.³⁾ 그런데 이병주의 『지리산』에서는 사실적 자료를 근거로 ‘실록’에 가깝게 구성해낸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배경으로 ‘빨치산’을 항일의지가 가득한 청년으로 등장시켜 낸다. 더욱이 이 소설은 식민지 말기부터 해방 초까지의 역사를 충실하게 담아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빨치산 재현의 사실성이 담보된다.⁴⁾ 물론 아

년 세운문화사에서 2권의 단행본(1권 『잃어버린 계절』, 2권 『작은 공화국』)으로 출판된다. 그리고 1981년 장학사에서 8권 분량으로 연재 소설 전체를 다시 출간하는데 이때 ‘실록대하소설’이라는 기호가 붙게 된다. 1985년 기린원에서 원고지 3000매 정도의 분량을 추가해서 개정판(6, 7권 내용이 포함됨)을 낼 때에도 ‘실록대하소설’의 기호가 그대로 사용된다. 2006년 한길사 본에서는 ‘실록대하소설’의 기호를 삭제한 채 출판했으며 1985년 기린원 출판에서부터 『지리산』 2권 제목이 ‘기로부터’로 편집된다. 참고로, 연재할 당시에는 단행본 2권에서 보이는 ‘기로부터’가 없었고 모두 ‘잃어버린 계절’ 안에서 다루었다. 기린원 출판 과정에서 ‘젊은 지사의 출발’(1973.9월호) 부분부터 2부로 편집된다. 지금까지 『지리산』의 출판 과정을 밝힌 글은 전무하다. 이런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리산』을 하나의 균질한 이야기로 읽어내는 것은 조금은 섬세하지 않은 접근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증보/완결의 전체본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길사 본을 주 텍스트로 삼았으며 인용 표시 역시 한길사 본을 따랐다. 다만, 각 출판본마다 구성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각 본을 직접 표시하며 인용하고자 했다.

- 2) 1955년 <피아골>에서 빨치산이 재현되기는 했지만 반공영화의 맥락으로만 재현되었다.
- 3) “빨치산, 도적군의 인해에 활권 자국이 도처에”이라는 기사의 내용이 그것이다.(<한국의 얼굴 23-남한 제일의 영산 지리산>, 『동아일보』, 1976.6.8.)
- 4) 정찬영은 ‘하준규와 박태영’ 등 역사에서 소외된 다양한 인물들의 시각을 빌려 역사적 사건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지리산과 서울 등 구체적 공간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소설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고(정찬영,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 『지리산』론』, 『문창어문논집』 36권, 문창어문학회, 1999, 303-336쪽), 박중렬은 역사에서 소거된 이들의 삶을 되살리기 위해 실록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이 의분을 서사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구조, 역사적 사건에 대한 논평적 담론 구조, 보광당과 남부군을 중심으로 한 대위법 구조

이러니컬하게도 1985년 『지리산』이 완결되었을 당시에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편승한”⁵⁾ 작품이라는 평가 역시 제기되었다. 이 두 견해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실록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신문 기사와 수기 등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평가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농도 짙게 나타난 작품이라는 평가가 그것인데 이 두 가지 견해는 역사의식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그럼에도 이 대립된 평가의 원인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채 텍스트 분석 중심의 연구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

『지리산』은 1971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그 이듬해에 연재가 시작된다.⁶⁾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시작된 해이다. 그러나 유신 체제가 곧바로 시작되면서 ‘반공법’이 엄혹했던 시기를 그대로 관통하게 된다. 국외 정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 중반 월남전이 끝나고 데탕트가 본격화되었지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으로 반공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동시에 유신 체제의 논리에 반대하는 학계, 노동계, 언론계의 목소리 역시 거세었던 시기였다. 즉 『지리산』을 연재하던 시기가 데탕트 시대이자 동시에 유신 정국이었는데, 작가 이병주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해방 전후사’⁷⁾를 소설의 배경으로 선택한다. 1970년대

를 사용한다고 설명하면서 ‘의분’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고 쓴다.(박중렬, 『실록소설로서의 이병주의 『지리산』론』, 『현대문학이론연구』 2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173-191쪽) 김윤식은 실존인물 하준수를 모델로 한 하준규를 작품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실록’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한다.(김윤식, 『지리산의 사상-이병주의 《지리산》론』, 『문학사와 비평』 1집, 문학사와비평학회, 1991, 233-257쪽)

5) 박명림, 『태백산맥, 80년대 그리고 문학의 역사』,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1991.

6) 김복순은 이 지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김복순, 『‘지식인 빨치산’의 계보와 『지리산』』, 『인문과학연구논총』 22,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35-55쪽)

7) 정호웅은 1980년대 ‘대하소설’의 흐름을 주요하게 포착하는데 “민족분단의 원인을 뿌리부터 캐내고 그 비극의 정점이었던 6.25를 거쳐 오늘의 분단 현실과 통일의지로가

에 ‘해방 전후사로 돌아가는 것은 대한민국 내부의 모순을 그 기원에서 반성적으로 묻는 성찰의 과정인 동시에 역사를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선택이다. 작가의 이런 태도는 1970년대의 현실과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현실의 긴장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이를테면 ‘빨치산’ 소재를 다른 방식으로 전유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지리산』의 후반부에서는 주인공이 ‘전태일’이라는 가명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⁸⁾ 역사소설이지만 1970년대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소설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설이 증보된 1980년대의 맥락 역시 중요하다. 브루스커밍스의 한국전쟁에 관한 수정주의적 해석이 진보적 지식인에 영향을 준 시기이자 동시에 해방전후의 역사를 전유하는 분열적 역사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등장했던 시기이다. 이문열의 『영웅시대』가 ‘빨갱이로 놀림받던’ 소년의 삶을 아버지의 이념 과잉과 독선의 결과로 그려내고 있다면 『태백산맥』에서는 “빨치산의 삶을 사는 것이 기존 위계적인 사회적 관계의 해체와 새로운 인간관계의 창출⁹⁾”로 전혀 다르게 해석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분단시대 사학’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며 『분단시대의 역사 인식』 등이 필독서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¹⁰⁾ 때문에 이 소설이 내용적, 구조적으

지 발전시키는” 대하 장편소설의 첫 시작을 홍성원의 『남과북』으로 두 번째 작품으로 이병주의 『지리산』을 꼽는다. 이 흐름을 잇는 작품으로 김원일과 조정래의 작품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분명하게 구별할 것은 이병주의 『지리산』은 다른 소설과 달리 6.25가 소설의 핵심 소재로 말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분단문학’으로 범주화하기에도 어렵지만 이 흐름 속에서 읽히고 쓰여졌다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분단문학 대하소설이 주류>, 『경향신문』, 1987.6.22.)

8) 박태영은 이미 죽고 없는 학적부 속의 인물인 전태일로 분해, ‘전태일’이라는 이름으로 지리산에 보급 물자를 보내는 일을 한다.

9) 이해령, 『빨치산과 친일파』, 『대동문화연구』 100집, 대동문화연구원, 454-456쪽.

10) 김언호, 『우리 시대 베스트셀러의 사회사』-강만길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출판저널』 14, 대한출판문화협회, 1988.

로 균열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시대적 맥락과 연결지어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리산』은 1970-80년대의 시대정신과 연동하며 그 깊은 심연을 관통하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2. 1970-80년대 이병주와 『지리산』

이병주는 1965년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통해 등단한 이후 『관부연락선』, 『지리산』 『산하』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다수의 작품을 남겼지만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은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이다. 특히 이병주는 『지리산』 연재를 앞두고 “역사의 그물로써 파악하지 못한 민족의 슬픔을 의미로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문학에의 신념을 『智異山』에 순교(殉敎)할 각오”라고까지 밝히면서 『지리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이병주는 『관부연락선』을 통해 한 청년의 몰락과 비극을 재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지리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었다. 몇몇 논자들은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은 학병 서사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주제를 두 개의 방식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분석하기도 했으나¹¹⁾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을 ‘학병 서사’의 범주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¹²⁾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이 유태림의

11) 손혜숙, 『학병의 기억과 서사: 이병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6집, 우리문화회, 2020, 271-306쪽. (『관부연락선』은 학병지원자 개인의 지원 동기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리산』은 학병거부자의 시선을 취함으로써 학병지원자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화한다. 다만 『지리산』은 운명이라는 이름 하에 학병지원자와 학병거부자 모두 시대의 피해자로 전이시킨다고 분석한다)

12) 이병주 소설은 김윤식의 ‘학병세대의 글쓰기’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한다. 이병주가

수기를 하나의 모티프로 하는 서사임에는 분명하지만¹³⁾ 다시 말해 주인공이 창씨개명 무렵 도일하여 학병 제도가 실시될 무렵 지리산으로 입산하기는 하지만, ‘학병 세대’의 감정 구조 보다 중요한 것은 ‘해방전후’에 ‘빨치산/빨갱이’에 기투하며 새로운 삶의 양식을 모색하는 역사의 단면이다. 『관부연락선』이 1960년대 맥락에서 ‘학병’이라는 기호를 발신하고 있다면¹⁴⁾ 『지리산』은 1970-80년도 맥락에서 ‘빨치산’ 표상을 통해 동시대의 역사인식을 형상화한다.

『지리산』이 연재, 출판, 증보되는 과정은 소설의 주제 구현과 밀접하

‘학병 세대’의 이중적 내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가로 재평가하면서 이병주 소설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김윤식은 이병주 소설과 관련해 『이병주와 지리산』(국학자료원, 2010), 『이병주 연구』(국학자료원, 2015) 등 외에 『일제 말기 한국인 학병 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서울대출판부, 2007) 등을 펴냈으며 『지리산』에 집중한 연구로는 『지리산의 사상-이병주의 《지리산》론』(『문학사와 비평』 1집, 문학사와 비평학회, 1991) 등이 있다. 한길사에서 펴낸 『지리산』에서도 『지리산의 사상과 『지리산』의 사상』으로 『지리산』론을 분석하고 있다. 김윤식은 이 글에서 『지리산』을 ‘실록소설’이자 ‘교육소설’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 분석 역시 『지리산』을 한 편의 완결된 서사로 가정하고 있다.

- 13) 지금까지도 이병주의 소설을 ‘학병 세대’, ‘학병 서사로 읽는 경향이 농도 짙게 반복되고 있다. 이는 해방 이후 청년 지식인의 이중적 내면을 포착하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학병 서사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부연락선』을 지식인-청년이 가진 이중성으로 재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식민지 엘리트 ‘학생’이 제국의 ‘병사로 지원(동원)하는 과정에서 자부심과 수치심의 이중적 내면이 형성되었다고 분석한 것인데 이런 내면 구조가 『관부연락선』 뿐만 아니라 『지리산』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지리산』에서 주인공은 학병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병 세대’의 의식으로 갈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병주 소설을 ‘학병 서사로 분석하고 있는 김윤식 역시 『지리산』을 실록소설로 언급하고 있다.(각주 12 참조)
- 14) 김성환은 『식민지를 가로지르는 1960년대 글쓰기의 한 양식-식민지 경험과 식민 이후의 관부연락선』(『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류동규의 『65년 체제 성 『65년 체제 성립기의 학병 서사-관부연락선 읽기』, 『어문학』 130, 2015) 그리고 정창훈의 『우애의 서사와 기억의 정치학』(『서강인문논총』 52집, 인문과학연구소, 2018, 197-241쪽) 등이 있다.

게 연동한다. 『지리산』은 1972년 8월부터 1977년 8월까지 『세대』에 연재하다가 연재 60호로 종결한 다음 곧이어 단행본을 출판한다. 출판 내용만 본다면 주인공 박태영과 이규가 꿈과 열정을 가진 청년으로 분해도전하고 저항하며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1981년에 연재본 전체를 장학사에서 다시 출판한다. 비로소 연재본 전체가 전질로 나온 것이다. 이 장학사 본에는 공산당에 입당하고 탈당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박태영의 고투까지 모두 재현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81년 연재본 전체를 전질로 묶어내자마자 “발표되고 중단됐던 원고라고 밝히며 후속 이야기를 잡지에 게재한다. 『한국문학』에 게재한 『허망의 정열』이다.¹⁵⁾ 관행적으로 연재 중단된 원고를 다시 연이어 연재하고자 할 때에는 전집으로 출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병주는 1978년에 한번, 그리고 1981년에 연이어 전질 출판을 감행한다. 더욱이 1981년 출판본에 추천사를 곁한 서문에서는 “이제 완결에 단계에 있는 『지리산』¹⁶⁾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물론 이병주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소설을 완결된 형태로 전질 출판을 결정한 것은 자의반타의반 본인의 결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재 속개를 시작하며 연재의 변을 말하지만 『허망의 정열』 정도만 썼을 뿐 그 이후에는 연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허망의 정열』까지 포함된 증보개정판을 1985년 전집으로

15) 이와 관련 이병주는 “4부까지 발표되고 중단됐던 지리산 5부작의 서두로 쓴 소설”로 『허망의 정열』을 얘기한다. 이 기사에서 “박태영은 마르크주의의 출현이 자본주의가 내포한 이념적 현실적 모순의 반사에 의한 것이었으며 더 살기 좋은 세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삶의 욕구에 의한 새로운 체계적 이념의 제시였던 것과는 너무 멀리 벗어나 무모한 폭력과 살인, 증오와 분열이 마르크스 논리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된” 이야기로 소개한다.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의 허구성 『허망의 정열』>, 『경향신문』, 1981.11.30.

16) 『민족사를 형상화한 대서사시』, 『지리산』, 장학사, 1981, 6쪽.

다시 출간한다. 『허망의 정열』을 포함해서 6,7권이 추가되었다. 작가는 1985년 7부작으로 완간을 기념하며 “지리산의 파르티잔을 포함한 남로당이 민중의 가슴에 허망만을 남겼다”고 말하며 ‘허망한 정열’¹⁷⁾로 박태영의 행위를 가치판단한다. 이는 『지리산』을 연재할 때의 인터뷰 내용과 사뭇 달라진 것이다. 비극의 역사를 초점화하는 대신 한 개인의 ‘허망한 정열’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주인공 박태영에 대한 가치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1985년 ‘증보’판을 내면서 ‘증보’라고 밝히 않고 ‘완결’로 이야기하는 점이다. 이병주는 1970년대 당시 『세대』지 폐간으로 ‘연재중단’이 있었다고 밝히지만 1985년 이전에 두 번의 출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미완’된 원고를 1985년에 완결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세대』지는 연재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 년 이상 발간되고 있었고, 이병주는 연재 이후 곧바로 단행본으로 묶어냈을 뿐만 아니라 약 이 년 뒤에 다시 연재본 전체를 ‘전집’ 형태로 발간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1970년대 텍스트와 1985년 텍스트는 ‘미완’-‘완결본’이 아니라 두 번의 판본 즉 연재본과 증보판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증보’판이 나오는 과정까지 고려하면 증보판은 ‘연재본에 대한’ 소설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리산』 연구는 1985년 판본을 완결본으로 상정하면서 『지리산』의 출판 과정을 묻지 않은 채 연구되고 있다.¹⁸⁾

또한 6, 7권의 서사의 동력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남부군』의 저자 이태는 “자신의 1천 8백 장 가량의 원고 중 8백 20여장이 지리산 6권 중간 부분부터 7권 3분의 2까지”¹⁹⁾ 표절되었다고

17) 〈지리산 배경삼은 소설 작품 잇달아〉, 『매일경제』, 1986.4.12.

18) 연재본과 증보판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두 개의 판본을 미완-완성의 층위에서 논의하려면 일차적으로 텍스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19) 〈이병주 장편 『지리산』 자료 시비 “내 원본 8백20매 그대로”〉, 『경향신문』, 1988.

밝힌다. 이 정도의 분량이라면 『허망의 정열』 이후에 이병주가 실제로 쓴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이다. 『지리산』 6권 중반부에 『남부군』의 작가인 이태가 인물로 등장해²⁰⁾ 『남부군』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전재의 알리바이는 성립하지만 그럼에도 『지리산』 6, 7부의 증보 부분이 이태의 원고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문제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판 이후 표절 논란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 밝힌 바, 이병주가 『세대』에 연재 중일 때 이태가 출판사에 출간 요청을 의뢰했지만 출판사에서 “유신 상황을 이유로 게재가 곤란하다고 거절한 후 참고만 하겠다고 말한 다음 이병주한테 원고를 전달했고, 이병주는 1985년 재출판을 앞두고 이태의 『남부군』 수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소설의 일부로 차용한 것이다.²¹⁾ 이와 관련해서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표절 여부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지리산』의 ‘증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태의 ‘수기’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지리산』의 전반부에서도 다른 사람의 수기를 가져다 쓰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야기의 사실성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였으나 『지리산』 6, 7권에서 차용하고 있는 이태의 『남부군』 수기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6, 7권의 내용이 『지리산』 연재본의 흐름으로 파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이야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은 ‘증보’의 알리바이와 관련해서 중요하다. 연이어서 살펴보겠

8.25.

20) 소설에서도 이태가 인물로 등장하며 사건을 전개시켜 나간다. 또 이태의 수기라는 사실도 일부 밝히고 있기는 하다.

21) 〈이병주 장편 『지리산』 자료 시비 “내 원본 8백20매 그대로”〉, 『경향신문』, 1988.

8.25. 문제의 발단은 1975년 원저자 이씨가 자신의 수기 원고를 들고 모주간지에 게재를 의뢰하면서부터 ‘유신 상황’ 아래서 게재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주간지측은 이같은 입장을 원저자 이씨에게 전했는데 이 원고를 이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당시 『지리산』을 집필중이던 작가 이씨에게 넘겼다는 것, 원저자 이씨는 “당시 작가 이씨에게 원고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 1년 뒤에야 주간지를 통해 돌려주었는데 이미 원고를 복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만 연재본과 6, 7권이 증보되는 맥락을 『지리산』의 주제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리산』은 ‘1970-80년대’의 담론, 표상, 이념을 절합하며 해방 전후의 역사를 재현한다. 1970년대를 가로지르며 ‘빨치산’ 표상을 통해 국가 폭력과 그에 맞서는 저항의 힘이 동요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의 표상이 해체, 분열한다면 1980년대 ‘증보’된 이야기는 1970년대의 분열을 성급하게 수정하고 통합해 버리고 만다. 이 과정에서 미완-완성, 완결-증보의 형식은 서사의 균열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또 이 균열 자체가 1970-80년대의 시대적 맥락이 어떻게 소설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3. ‘빨치산’ 표상의 분열과 재구성

『지리산』의 스토리 시간은 1933년부터 1971년까지이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간은 1933년으로 ‘조선 혁명당이 중국의 구국회와 합작해서 항일전선을 결성한 해이며, 1971년은 박태영의 아들 박태규가 ‘소르본 대학 화학과 수석’ 졸업하는 사건이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시기이다.²²⁾ 스토리 시간은 40여년의 시간이지만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은 ‘해방 전후’이다.

주인공 박태영은 진주중학의 최고 수재이다. 일제 말기 창씨개명과 학병 제도가 공표되던 시기인지라 중학 5년차 박태영의 삶도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박태영은 중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로 조선을 떠

22) 『지리산』 7권, 375쪽.

나 일본에서 ‘독립투사’의 삶을 모색한다. 그는 우유배달부 노릇을 하지만 고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최고 성적을 받으며 신문에 대서특필 되는 등 씩씩하게 삶을 개척해 나간다. 그러는 와중에 반려자 김숙자도 만나게 된다. 박태영은 강제입영을 피하기 위해 지리산에 들어가 때를 기다리기로 마음 먹으며 선배인 하준규를 만나 의기투합해서 지리산 생활을 같이 해나가게 된다. 이들은 해방을 앞둔 1944년 ‘보광당’이라는 투쟁 조직으로 ‘조국독립’을 맹세하며 조직적으로 살아가는데, 보광당은 교양 지도와 군사훈련, 식량 마련 등을 같이 해나가며 단단하면서도 우애를 나눌 수 있는 목가적 공동체이다. 이 과정에서 몇 번의 어려움을 경험하나 서울 갑부 하영근과 권창혁, 그리고 친구 이규와 부인 숙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을 확인한 후 보광당 150여명은 해체된다. 광복 이후 무질서와 혼란이 거듭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는 대내외적 세력의 이전투구 현상이 거세어지는데 하영근은 이런 상황을 걱정하며 이규의 유학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선다. 결국 이규는 하영근의 도움으로 일본을 거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 역사 공부에 나서는데, 박태영은 하영근의 도움을 거절하고 공산당에 가입하게 된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 박태영이 민족독립의 꿈을 가지고 공산당에 가입하는데 공산당이 반탁서 찬탁으로 결정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박태영은 민족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반탁을 고집하다가 당에서 제명된다. 이후 박태영은 공산당의 배신, 완고, 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1950년 4월 전태일이라는 가명으로 지리산에 보급품을 전달하려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붙잡혀 위험에 처하지만 고향 후배 등의 도움으로 목숨을 보전하고 육이오 전쟁 중에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박태영은 그 이후 공산당-인민군과 활동을 같이 해나가려고 하지만, 배신과 모함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박태영은 이태와 함

계 남부군 활동을 해나가지만 동료들이 체포, 사살되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끼자 빨치산 8명을 자수시키고 자살한다. 유학에서 돌아온 이규는 박태영의 무덤 앞에 무명의 비석을 세우고 박태영의 아들 박태규의 소식을 전한다.²³⁾

3-1. 연재본의 주요 내용

『지리산』의 연재본(5권까지)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박태영이 민족독립과 이상적인 삶을 기도하며 도전, 성장, 모색하는 이야기로 일제 시대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생활이 재현된다. 4권 중반 이후 박태영이 공산당에 입당하는 내용도 다뤄지는데 공산당의 배신, 모함이 주로 표현된다. 이 이야기 속에서 박태영은 주인공이자 초점자이다. 박태영은 영웅적 인물이자 긍정적 인물로 그려지며, 이규를 비롯해서 하영근과 김숙자는 박태영의 조력자로 활동한다. 공산당 입당 이후 박태영을 향한 독자들의 거리가 일시적으로 조정되기도 하나 그럼에도 일관되게 보여지는 것은 ‘빨치산’을 후원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이다.²⁴⁾

『지리산』 전반부에서 박태영이 도전과 성취가 가장 빛나는 부분은 지리산에서 생활하는 모습이다. 엄격한 규율과 혹독한 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삶의 질서와 안정감이 더해진다. 보광당을 이끄는 조직의 리더인 하준규의 맹활약 속에서 평화롭고 목가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23)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텍스트는 2006년 출판된 한길사의 『지리산』이며, 연재본과 장학사 본을 동시에 참고했다.

24) 박태영이 공산당에 가입하면서 일시적으로 조력자인 하영근과 이규, 김숙자와 거리가 멀어지기도 한다.

“고리키의 어떤 점에 감동했나 감동이 있었기에 것처럼 다음으로 읽은 것이 아니겠나”

“가난하게 자라 고생하면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데 감동했습니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설마 공산주의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렇습니다. 다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1권65쪽)

조직의 준비 작업은 박태영을 중심으로 착착 진행되었다. 모임의 목적은 ‘조국독립의 그날까지 심신을 단련하고 동지 상호간의 절차탁마하며 왜적을 비롯한 민족의 적에 결사 항거 투쟁한다’고 정했다.....조직의 이름은 두령의 제안대로 ‘보광당’으로 정했다. ‘보광’이란 널리 나라의 빛이 되자는 뜻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끝에 당이라고 한 것은 조직의 의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2권 205쪽)

『지리산』 1, 2권 서두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박태영의 기질과 성격이다. 일본에 건너가 고등학교 입학 자격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1등을 할 정도로 똑똑한 인물로 조명된다. 단지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정열과 의지를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창씨개명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도일을 한 것은 물론, 고리키의 작품을 읽었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훈계 받을 때에도 “가난하게 자라 고생하면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당당히 밝힌다. 자신에게 사상이 있다면 “조국이라는 사상”²⁵⁾이라고 답하는 것도 같은 예이다. 지리산에 들어가서도 이런 생각은 반복된다. ‘조국 독립의 그날까지’ “왜

25) 『지리산』 2권, 190쪽.

적을 비롯한 민족의 적에 결사 항거 투쟁”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빨치산의 길을 선택한다.

함양이 고향인 박태영에게 지리산은 고향 그 자체이다. 지리산에 들어가서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목가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박태영에게 지리산은 자기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고향이다. 그는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일제 시대에도 지리산에서 파르티잔 노릇을 했소”²⁶⁾라는 말을 빈번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빨치산 생활은 1946년 『신천지』에 실린 하준수의 『신판 임거정-학병거부자의 수기』를 실록으로 그대로 참조한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빨치산’을 ‘임거정’으로 표상할 수 있는 근거를 수기에서 찾아 ‘빨치산’을 새롭게 그려내고 있다. “동지 73명으로 보광당을 조직하고 일본이 전쟁을 계속 못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방해할 것과 당원을 훈련하여 연합군 南鮮上陸時(연합군이 남선에 상륙할 것을 전제)에 응할 수 있도록 제반 태세를 갖추자는 것이 우리들의 행동 목표에 있었다”²⁷⁾ 등의 내용은 거의 수기와 같다. 등장인물도 『신판 임거정』과 거의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박태영의 생각과 관점 등이 투영되는 것, 다시 말해 지리산 입산의 생활상은 거의 같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초점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박태영은 지리산에 합류한 권창혁과 이현상의 이야기를 통해 공산주의를 둘러싼 여러 생각들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권창혁과 이현상은 모두 공산주의를 지향하면서 방법과 태도 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권창혁이 비판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한다면, 이현상은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현상

26) 『지리산』 7권, 303쪽.

27) 하준수, 〈신판 임거정-학병거부자의 수기〉, 『신천지』, 1946.5., 167쪽.

이 “지리산에 공화국을 만듭시다”(2권 59쪽)라고 말할 때 박태영은 “소년처럼 순진하고 들뜬 기분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바로 그거야”라고 외치기도 하지만(2권 59쪽) 권창혁은 이를 두고 ‘로맨티스트’의 ‘극좌모험주의’(2권 62쪽)이라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두 인물이 대립적으로 그려진다. 박태영은 두 인물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면서 초점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 내면서 사회주의를 통해 공동체를 상상하게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런 맥락 속에서 독립운동가와 공산주의자가 비슷하게 그려지기도 한다. 권창혁은 “이런 현상은 제정 러시아에만 있는 게 아냐 바로 우리나라에도 있어. 독립운동자나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체포되는지 아냐”(2권 63쪽)라고 물으며 부지불식중에 독립운동자와 공산주의자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다. 그러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든 일본 놈에게 잡아 받친단 얘기야.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자들은 근절되다시피 지표상에서 꺼져버린 거다”(2권 63쪽)라고 하면서 ‘제정 러시아 공산주의자’를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공산주의자’로 유비적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를 현재의 ‘우리’ 상황으로 동일시하면서 ‘독립운동자’의 사례로 마무리한다. 이는 권창혁과 이현상이 등장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지리산 보광당에서 빨치산 모습은 기존 질서에서 소외된/탈주한 ‘임거정’ 표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산주의자로 상상된다. 이 과정에서 학병거부자와 독립운동가가 동일한 범주로 묶이는 것은 물론 독립 운동가와 공산주의자가 근거리에서 의미화된다. 이현상은 식민지 시기 6.10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을 벌인 인물이자 해방 이후에는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혁명가이다. 이 인물은 박태영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해방 이후 박태영이 공산당에 가입하는 데 배경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²⁸⁾

28) 김윤식은 이병주의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이 학병 거부를 소설화했기 때문에 소

이처럼 연재본 〈지리산〉에서 ‘빨치산’은 ‘빨갱이’로 등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제 시대에 학병을 거부하며 식민지 질서에 저항하는 인물로 ‘빨치산’을 표상해냄으로써 빨치산의 외연을 확장시켜 낸다.

3-2. 1980년대 증보된 내용

『지리산』 6, 7권의 주 내용은 박태영의 공산당 입당 이후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초점자로서의 박태영의 위치가 동요하기 시작한다. 4권에서부터 그런 면모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텍스트의 구조적 균열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적 변화 정도로만 그려졌다면²⁹⁾ 6, 7권은 그 양상이 다르다. 박태영이 ‘초점자’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서 빨치산 표상이 반공주의 맥락 속의 빨갱이 표상과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에 있는 빨치산/빨갱이는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인간이자 언제든 죽여도 좋은 인간으로 그려진다. 즉 ‘빨갱이’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개입하지 않는 표상으로 고정된다.³⁰⁾ 박태영이 죽는 날까지 공산당의 모습

설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지리산』은 ‘학병 거부’ 그 자체보다 ‘빨치산’의 기원을 민족 독립의 맥락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점이 더욱 주목할 만하다.

29) 『남부군』의 저자 이태는 “해방에서 동란까지의 5년간은 그야말로 가치혼돈의 시대였다. … 동서 냉전논리 속에서 청년들은 그 어느 편인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이승만을 지지하면 애국자고 반대하면 빨갱이었다”고 쓰고 있다(이태, 〈자전 에세이 나의 길 기자 빨치산 의원 - 필사의 장정〉, 『동아일보』, 1990.9.9.)

30) 『지리산』은 KBS 드라마로 제작되었는데 드라마에서는 소설보다 더 전형적인 방식으로 ‘빨치산’과 ‘박태영’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질의를 벌인 국회 문공위 회의에서 한 민정당 의원이 질문했다. “KBS가 〈지리산〉이라는 대하드라마를 만든다는데 그거 혹시 의식화 프로그램 아니오” 그 의원은 아마도 〈남부군〉 류의 빨치산 문학을 연상했음에 틀림없다. “그 〈지리산〉이라는 소설을 누가 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 토막의 에피소드는 지난 월요일부터 KBS 제1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8부작 대하드라마 〈지리산〉(극본 김원석, 연출 김충길)의 성격을 잘 묘

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물의 날선 비판이 내면의 갈등과 분리되면서 반공주의 맥락에서 전유된 ‘빨갱이’ 기호를 그대로 소비하고 있다는 인상이 분명해진다. 결과적으로 서사의 역동은 줄어들고 반공주의 이념을 전시하는 인상이 짙어진다.

태영은 초연한 입장을 취하기로 마음 먹고, 독서회 멤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다. 모두들 태영의 그 퇴영적인 태도에 놀라는 것 같았다. 그러나 태영은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철저하게 끝까지 투쟁할 각오와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데 태영의 본심은 학생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당에 대한 불신을 안은 채 활동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박태영은 당분간 독서에 열중하기도 했다. 특히, 트로츠키의 『러시아 혁명사』와 베르슈타인의 『수정 사회주의』에 열중했다. 당의 바른 노선을 모색하려면 유럽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세력의 분열, 러시아 공산당의 분파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두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원과 사회는 여전히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으나 박태영의 나날은 그런 탓으로 해서 평온하게 흘러갔다. [...] 박태영은 이 사건을 싸늘하게 관찰했다.³¹⁾(밑줄 인용자)

박태영은 자기 호명을 싸늘한 기분으로 들었다. 서훈이 끝나자 시인

약해 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결국 한 편의 뛰어난 반공드라마일 뿐이었다. 행동하는 지식으로 설정된 박태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겁에 달리고 주눅든 ‘패배자’ 같은 모습을 보였고 이현상을 비롯한 빨치산들은 예외없이 비인간적인 스타카토식 억양으로 ‘동무들’을 뺏어내고 있었다. 원작자의 회색적 허무주의와 냉전논리가 주인공들의 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관찰되었으며 결국 역사의 소모품으로 비명에 죽어간 빨치산들을 화면 앞에 끄집어내어 다시한번 죽이는 ‘새디즘’외에는 아무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프로였다. “학문적·문학적 성과에 따라 새로운 역사인식, 현실인식을 갖게 된 80년대 시청자들에 비해 드라마 〈지리산〉은 70년대 대중의 의식수준에 머물러있다”는 한 평자의 지적이 더없이 옳게 느껴진다.”(〈허무주의, 냉전논리 관찰 KBS 대하드라마 ‘지리산’〉, 『한겨레』, 1989.6.7.)

31) 『지리산』 5권, 191쪽.

하 동무의 자작시 낭독이 있었다. ‘굴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그 시는 다음과 같았다. 피로 얼룩진 산마루에 앉아 되고/ 초연히 흐르던 골짜기에 눈이 내리고/ 그렇게 백 천의 세월을 거둬갈 때까지/ 지리산아 다시금 새겨라/ 천백 배의 적과 맞서 싸워/ 우리들은 굴할 줄 모르는 용사들이었다고... 그것은 감동없는 한숨, 메아리 없는 고향에 불과했다. 차라리 ‘지리산아 백전 겁 먼 훗날까지 너를 모독한 우리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했더라면 파르티잔의 가슴에 메아리라도 남겼을까³²⁾(7권 211쪽)

첫 번째 인용은 5권에서 보이는 박태영의 시선이다. ‘박태영은 ‘씨늘하게 관찰’하고 있지만, ‘독서회’ 모임에서 『러시아 혁명사』에 관심을 가지며 ‘당의 바른 노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초점자가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본인의 관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혼란한 소용돌이’ 속에서 좌익이나 우익의 행위 모두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5권 192쪽)의 지도력에 불만을 드러내는 입장을 드러내는 초점자의 위치를 견지한다. 박태영이 ‘씨늘하게 관찰’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당의 바른 노선’을 만들기 위한 비판적 태도의 반영이다. 그런데 6, 7권의 박태영의 시선은 달라진다. 박태영은 영예 훈장이 수여되는 자리에서 저항 의지를 고취하는 ‘굴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시를 듣게 되는데 ‘감동없는 한숨, 메아리 없는 고향’이라고 폄하한다. 공산주의 활동 자체를 ‘감동 없는’, ‘메아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박태영의 ‘씨늘한 시선’이 비판적 지지에서 의미 없음 정도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박태영은 파르티잔/빨치산 활동으로 구분하며 6.25 시기 빨치산 활동을 비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여러 결정을 두고 괴로워한다. 박태영

32) 본문에 인용된 ‘굴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시는 원작에서는 행구별이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로 편집했음을 밝혀 둔다.

이 일제 말기에 지리산에 들어간 것은 잘한 일이지만, 해방 이후에 그 일을 떠올리며 지리산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선택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박태영의 몰락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공산당 활동에 참여했던 본인의 행위를 참회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박태영의 자멸을 추동하는 자료 제시로 박태영의 초점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축소된다. 아래 제시된 내용은 당시 정황을 요약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정 관점이다.

- 3·1독립운동 33주년 기념식을 이승만 대통령, 신익희 국회의장, 김병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각 부처장관, 내외 귀빈 다수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충무로 광장에서 거행
 - 미국방부 장관, 서남 지구 공비 소탕전에 공훈이 많은 제1연대장을 표창
 - 국회, 조방 쟁의에 관하여 강일매 사장을 퇴사시키기로 결의
 - 미 국무성 서북 아시아국장 ‘케인스 양’ 씨 한국 방문
 - 미 극동 공군사령관 웨이랜드 중장, 재일 미 공군의 기구 개혁 발표
 - 대북에서 중일 회담, 명칭을 ‘강화조약’으로 결정
 - 홍콩에서 중공계 분자, 소요를 일으킴
 - 인도 총선거 결과 판명, 국민회의파 74퍼센트, 제2단 공산당, 제3당 사회당
 - 미국무성, 북경과 광동에 페스트가 유행하고 있다고 발표
 - 프랑스에서 드골 장군이 영도하는 국민연합이 리노씨의 연립 내각 수립에 협력할 것이라고 성명
 - 티토 유고슬라비아 수상이 제안한 트리에스트 공동관리안을 이탈리아 정부가 거부
 - NATO에 그리스·터키 가입
 - 북해의 ‘헬리 그랜드섬’, 서독에 반환
- 극히 간추려도 하루에 이만한 일들이 있는데 빨치산은 생과 사로만

추상된 공간에서 단조롭고 압박적인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한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 3월1일 서남지구 산악지대 공비소탕작전에서 공비 16명 사살, 포로 3명
- 3월2일 후방잔비 소탕전 경찰대 전과 확대, 잔비 사살 26명, 생포 5명, 귀순 8명, 2월29일 전과 추가 발표는 잔비 사살 14명, 귀순 5명, 경기관총 소총 11정 노획 (7권 260-263쪽)

서술자는 1952년 당시의 소식을 국내외 소식과 한국 정부 발표로 나누어 삽입하는데, ‘국내외 사정’을 집계한 소식에서 드러나는 것은 관점이다. “대한민국 경찰의 표현 그대로 공비가 잔비가 되고, 이젠 망실공비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 무렵의 국내외 사정을 간추려볼 필요가 있다”³³⁾로 연결되는 것은 박태영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언급이다. 박태영은 북한 단파 방송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신문기사와 다소 다른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소설의 완결성이나 정합성을 논외로 하면서 서술자가 ‘사실’을 앞세워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박태영은 빨치산/파르티잔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느끼며 갈등하는 인물이지만, ‘국내외 사정’을 전하고 있는 기록에서 호명하는 기호는 ‘공비’, ‘잔비’일 뿐이다. ‘공비’는 공산당 게릴라의 의미로 쓰이며, 잔비는 ‘공비’의 수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린다. 주인공 박태영은 ‘박태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공비’로 죽어간다. 소설 내에서 죽음의 형식은 ‘사실’이지만,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예정된 죽음에 가깝다. 6.25 전쟁 중에 ‘지리산’은 남한 바깥에 놓인 외부이자 ‘격리’와 다를 바 없는 공간이었고, 그 안에 있는 인물은 이미 ‘사실’이 가능한 죽여도 되는 존재이다. 전쟁 포로에 적용되는 법 집행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33) 『지리산』 7권, 259-260쪽.

‘지리산 지구 공비소탕전’을 벌였던 1952년 당시의 상황에서는 ‘예외상태’와 다를 바 없었다.³⁴⁾

“법무부 검찰국장 신언한씨에게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광주 시내에 설치한 임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앞서 지리산지구공비소탕전에 포로 오천오백여명에 대한 군법회의는 지난 7일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된 후 1개월 이내에만 군사재판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5월 7일 이후에는 일반 민간재판으로 이관될 터이라 한다. 정부수립되기 전해 가을에 일어난 여수순천반란사건이후 발생한 지리산 지구의 공산주의 게리라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혹은 쇠멸하는가 하면 혹은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후방의 치안을 교란해 오는 동안에 이들에게 오도되어 산속으로 들어갔던 부락의 남녀노소들은 작년 12월 1일을 기하여 전개된 국국 및 경찰 전투대의 일대포위섬멸전으로 그 전투부대가 전멸되면서 혹은 귀순 혹은 생포되어 그 수만 명 여명에 달하였던 것이다. 소탕작전에 있어서 군사령부에서는 정부방침에 의하여 정무공작을 병행하여 귀순자는 이를 관대히 포섭하는 원칙 밑에 그 중약 삼천여명은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이를 고향으로 돌려보냈고 또 일부 무당적성전투원은 전쟁포로로서 유엔군에 인도하고 남은 육천여 명의 소위 비무장 야산대의 남녀노소는 그동안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약 육천여 명을 판결하였고 이제 비상계엄령이 해제됨에 따라 나머지 오천오백여명은 일반 민간재판으로 의관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엄밀한 취조를 받은 결과 그들의 앞날이 결정될 이들 남녀노소의 비무장 포로문제에 대하여 검찰 국장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³⁵⁾

34) ‘예외상태’는 아감벤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다. “예외상태가 가진 직접적인 생명정치적 의미는 법이 스스로를 효력 정지시킴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을 포섭하는 근원적 구조”(17)를 말한다. 즉 정치적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인데, ‘헌법’ 상위에 (정치적) 법률의 힘이 가능함을 뜻하다.(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김항 옮김, 새물결, 2009, 17쪽.)

당시 상황은 신문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리산 지구 공비 소탕전’은 ‘비상계엄’ 상태에서 군경이 동시에 참여한 ‘소탕전’으로 보도된다. ‘경찰 전투대의 일대포위섬멸전’에 해당하는 계엄 상태의 전쟁으로 보도되고 있다. 때문에 ‘군경’이 참여해서 벌인 ‘내전’ 형태의 소탕전은 ‘사실’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군법과 민법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만, 이 구분은 형식 논리일 뿐이다. ‘지리산 공비 소탕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공산당원인지 아닌지, 누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짓기를 통해 ‘관대한 방침’과 ‘사면 정신’을 취할 수 있는 ‘정치’의 힘이 있다. 다시 말해, 이 기사에서 ‘지리산’은 이미 법의 바깥에 놓인 ‘예외상태’로 ‘죽여도 되는’ 주권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³⁶⁾ 빨치산을 ‘전쟁 포로’가 아닌 ‘공비’로 호명하고 법의 예외상태를 만들어 전쟁을 벌이며, 그 안에서 ‘부락민’을 다시 구분하는 이 힘은 남한 주권 권력을 만들어가는 동력이다. 『지리산』 결말에서 박태영은 ‘파르티잔’이었다는 사실을 잠시 떠올리지만³⁷⁾, 그 역시 ‘빨치산/파르티잔’의 구분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초점자의 갈등은 주변화되고 외적 서술자의 관점만이 전경화된다.

지금까지 보다시피 해방 이후 ‘빨치산/빨갱이’의 삶을 선택하며 다른

35) 〈誤導入山한 부락민〉, 『동아일보』, 1952.4.26.

36)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김항 옮김, 새물결, 2009.

37) 박태영은 죽기 직전에 “여순반란 사건 전후부터 있었던 사람은 빨치산이고, 6.25 때 산에 들어온 사람은 파르티잔이고”라는 식으로 두 존재를 구별하고자 한다. 구별짓기의 기준은 공산당의 입당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박태영은 구별짓기를 통해 본인의 진정성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이런 바람 역시 오래가지 않는다. “죽음으로써 파르티잔은 근절되었다.”는 식으로 지리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소멸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이라는 역설적 표현은 그가 했던 지난 활동을 부정하는 가치판단의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빨갱이 이전의 박태영의 삶도 동시에 지워진다.

삶을 살아내고자 상상했던 청년들의 역사가 지워지면서 ‘역사에 행간에 묻혀버린 슬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뼈저린 아픔을 형상화한 민족의 대서사시’³⁸⁾라는 측면은 드러나지 못한다. 비극의 역사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했던 한 청년의 실패로만 재현된다. 인물의 내면이 활기를 잃은 채 참회와 분노를 반복하는 것은 외적 서술자가 제시한 이념이 전경화되면서 생긴 결과이다.

4. 빨치산(호모시케르)은 ‘고통’을 말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5권과 6, 7권의 결정적 차이는 작품 내에서 인물-초점자의 권위이다. 박태영은 ‘해방전후’의 역사를 바라보는 인물-초점자로 기능하지만 6권부터 초점자의 권위가 동요한다. 5권까지 외부서술자의 역할이 인물 서술자의 시선과 역할을 보충하거나 방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6권 이후에는 외부 서술자의 시선이 인물 초점자의 시선과 무관하게 제시되면서 인물 초점자의 시선이 작품 내에서 권위를 얻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7권에 이르러서는 초점자가 이규로 바뀌면서 작품의 주인공인 박태영은 ‘무명’의 존재로 그려지게 된다.

그런데 외적 서술자의 개입 보다 더 문제적인 것은 박태영의 삶을 ‘무명’으로 판단하고 정리하는 인물-초점자로 박태영의 친구인 이규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는 입국하자마자 ‘행방불명’으로 알려진 박태영의 죽음을 ‘순이’를 통해 알아낸 다음 자료조사를 해서 박태영의 행적을 재구성한다. 원래 순이가 박태영이 남긴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경찰에

38) 이광훈, 『민족사를 형상화한 대서사시』, 『지리산』, 장학사, 1981, 6쪽.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박태영의 삶을 이규가 재구성할 수 있는 알리바이는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소설의 에필로그가 액자 소설처럼 읽힐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액자 내부는 ‘해방 전후에 뜨겁게 살다간 한 청년’의 이야기로, 액자 바깥은 그 청년의 삶을 탐색하고 구성하는 친구의 이야기로 구성된다고도 볼 수 있다.

순이를 면회한 직후부터 이규는 순이의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악질 공비로 단정되어 이육과 대구형무소 사형장에서 교수형을 받았다. 이규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을 반년쯤 연기하고 박태영에 관한 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주영중의 도움으로 박태영이 지리산에서 기록한 문서를 필사하기도 하고 생존한 빨치산 경력자들을 찾아다니며 얘기를 듣기도 했다. 청학동의 무덤을 비롯하여 박태영이 누비고 다닌 지리산을 두루 답파하며 그의 생과 사에 얽힌 의미를 살피려고 애썼다.³⁹⁾

하지만 이규가 서술자이자 초점자로 등장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규는 박태영의 친구이자 소년 시절 박태영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지했던 인물이지만 박태영의 삶의 맥락을 짐작하기 어려운 삶의 맥락 속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박태영은 자신이 직접 쓴 기록을 순이에게 전달한 바 있다. 만약 박태영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순이’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어땠을까. 또 박태영의 반려자인 김숙자를 통해 재구성되었다면 어땠을까? 6, 7권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던 프랑스 유학중이었던 이규가 박태영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적절한가? 만약 박태영이 부탁한 대로 김숙자가 이야기를 재구성했다면, 또 순이가 전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39) 『지리산』 7권, 374쪽.

역할을 부여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졌을까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는다. 이런 모든 가정과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에필로그>에서 이규가 박태영의 삶을 요약하는 일련의 태도와 관점 때문이다.

이규는 6권과 7권에서 줄곧 프랑스 유학중이었다. 다시 말해 박태영의 내적 갈등이나 '해방전후사'의 사정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박태영의 사후 행적을 정리할 수 있을까? 해방전후사의 역동적 국면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규는 박태영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태영의 삶과 '박태규'의 삶과 교차시켜 비교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박태규는 박태영의 아들로 김숙자가 박태영과 헤어진 다음 아이를 낳고 혼자 기른 아들이다. 이름이 '박태규'인 것은 '태영'과 '이규'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왔기 때문이다. 즉, '박태규'는 존재와 이름으로만 호명되지만 작품의 주제의식을 시사한다. 태영과 이규의 몫을 절반씩 나눠 준 결과처럼 명명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태규 역시 이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유학을 한 지식인으로 성장한다. 박태영의 자식이지만 박태규의 삶은 이규와 더 닮아 있는 것이다. 이는 에필로그에서 이규가 초점자로 등장한 이유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규에게 역사의 격랑 속에 새겨진 고통은 자신의 몫이 아니다. 그런 그가 해방전후사를 기록할 수 있을까. 엄밀히 말해, 역사에서 빗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신과 출세를 선택한 인물이 박태영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6권의 '허망한 정열'에 이어 7권 박태영의 죽음을 서술한 후 에필로그로 박태규의 '소르본 대학 수석'의 기사를 드러내면서 말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⁴⁰⁾

40) 1956년 이규가 프랑스 유학에서 돌아와서 박태영의 이후의 행적을 정리하며 박태영의 아들이 '화학자로 대서특필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알린다.

청학동의 무덤을 비롯하여 박태영이 누비고 다닌 지리산을 두루 답과 하여 그의 생과 사에 얽힌 의미를 살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해야 할 이야기의 주제와 내용이 될 것이다. '나폴레옹의 묘비에 묘비명이 없듯이 박태영의 묘비도 무명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이규는 이렇게 생각하여, 박태영의 무덤 앞에 아무런 글자도 새기지 않은 비석 하나를 세웠다. 왕년의 급장 김상태의 말에 의하면 "박태영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다고 스스로 과한 자기 형벌로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7권 374면) (밑줄 인용자)

이규는 박태영의 묘비를 '무명'으로 하겠다고 말한다. '나폴레옹의 묘비에 묘비명이 없듯이 박태영의 묘비도 무명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부적절한 유비이다. 나폴레옹의 묘비명이 없었던 것은 정치적 패배로 결과이다. 박태영을 나폴레옹에 연결해서 본 것이 아니라 '실패자'의 결과로 만들어낸 유비이다. 이규는 이미 박태영의 삶을 '무명'이라는 말로 가치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의 판단은 '왕년의 급장 김상태'를 통해 반복된다. 김상태 역시 "박태영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다고 스스로 과한 자기 형벌로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어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박태영이 벌을 받을 만큼 잘못했다는 말이다. 이규와 김상태 모두 유비와 완곡 어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박태영의 행위를 가치판단하고 있다. 역사의 격랑에서 비껴 서 있었던 인물들이 "분단 조국이 낳은 비극에 휘말린 인간들의 이야기"⁴¹⁾를 '차별 합당'하다고 가치판단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규와 김상태, 박태규 모두 '역사', '공동체', '이념' 등의 가치를 대신해서 '생활', '개인', '지식' 등의 가치를 선택한 인물이다. 즉 개

41) 이태, <분단 희생자 실체 진솔히 표현>, 『한겨레』, 1989.4.15.

인의 입신 출세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적 삶의 원리를 삶의 이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들이 박태영을 가치판단하면서 내세우는 것은 박태영의 아들 박태규의 성공적인 삶이다. 엄밀히 말해 ‘박태영’은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해방전후사의 일부이다. 그런데 이규는 개인 수준의 삶의 실패/성공으로 정리한다. 그 결과 박태영은 반공체제 속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동시에 해방전후사에 직접 참여하며 자기 삶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빨치산’이었지만 ‘빨갱이’로 죽었고, 또 1980년대 자본주의적 경쟁 체제에서 이름이 지워진 채 ‘무명자’로 소멸한다.⁴²⁾ 박태영의 ‘고통’은 일제시대 파르티잔으로 살았던 그가 반공체제 하에서 ‘빨갱이’ 표상에 갇히면서 발생했지만 증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는 ‘빨갱이’인 동시에 실패한 삶을 살았던 ‘무명’의 인간으로 역사 바깥에 내몰리게 된다. 박태영이 직접 쓴 수기는 남한 당국이 압수했지만, 그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은 ‘유명’한 삶의 모델인 박태규의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물들에 의해 다시 한번 처벌된다.

다시 말해, 박태영의 죽음은 반공주의 맥락 속에서 호모 사케르로 몰려서 죽은 것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비극을 개인의 것으로 환원시켜 ‘유명/무명’으로 판단하는 자기계발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처벌된 것이다. 1970~80년대 ‘빨치산’이 ‘빨갱이’로 표상되는 과정의 핵심의 기제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지만 1980년대를 경유하며 실패한 인생이라는 자본주

42) 1980년대는 ‘민중의식’이 확대되는 시기이자 동시에 ‘중산층 신화’와 자기계발 논리가 고양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강준만은 1980년대를 설명하며 “중산층 신화와 공안정국의 결탁”으로 ‘계급 전쟁’이 본격화된 시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 산책4』, 인물과 사상사, 2003, 35쪽) 또 이상록은 “호모에코노미쿠스의 개인적 욕망”이 강화되면서 ‘남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경쟁지향형 개인주의로 진화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록, 『1980년대 중산층 담론과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확산』, 『사학연구』 130, 한국사학회, 2018, 318쪽)

의의 자기계발 논리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병주의 『지리산』은 1970-80년대의 맥락에서 ‘해방전후사’를 배경으로 청년들의 기투하는 삶을 그려낸 역사소설이다. 1970-80년대 대한민국은 반공주의가 극심했던 시기이자 동시에 체제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 역시 확산되던 시대였다. 『지리산』은 바로 그 바로 그 시기에 해방전후사로 돌아가 빨치산의 삶을 선택하는 청년의 삶을 재현한다. 소설 전반부에서는 민족독립을 위해 빨치산이 된 청년들이 그려내면서 ‘빨갱이’로 표상된 ‘빨치산’의 전사 속에 다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추어낸다. 하지만 6,7권에서 ‘빨치산’은 ‘호모사케르’로서의 ‘빨갱이’인 동시에 실패한 인생이라는 판단을 통해 역사 바깥에 놓이게 된다.

『지리산』의 활력은 ‘빨갱이’ 표상을 해체하면서 해방 전후 냉전 체제가 야기한 비극을 청년들의 공동체 이상과 결합시켜 재현될 때 최고조에 이른다. 이를테면 우리 역사에서 ‘빨치산’은 ‘임거정’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역사적 사실과 조우할 때 텍스트의 활력은 고양된다. 그러나 소설 후반부에서 빨치산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 표상된 ‘빨갱이’로만 그려진다. ‘해방전후’의 역사 속에서 더 나은 국가를 상상하는 청년들의 고투도 뒤로한 채 ‘빨갱이’로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는 가치판단까지 덧붙여진다. 그리고 ‘빨치산’ 표상을 통해 ‘해방 전후’ 역사를 관통하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무관한 자본주의 경쟁 모델 안에서 전유한다. 이 과정에서 ‘해방전후사’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워지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위한 희생

이나 역사의 격랑 속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희생까지 후경화시킨다.

『지리산』 1권부터 7권까지의 내용은 균질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리산』 연구가 서로 다른 양상에 주목하며 ‘실록’과 ‘반공이념’ 혹은 ‘학병’ 등의 키워드로 분석했지만, 『지리산』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주제가 가능할 정도로 텍스트 자체가 균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출판사에서 ‘실록’ 소설로 장르 소개를 할 정도로 역사적 사실이 세세하게 채록되어 있지만 소설 전반부와 후반부의 사료 제시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태의 수기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6, 7권의 사료 제시는 서사의 동력이 텍스트 내부에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근거일 뿐이다. 또 ‘반공 이념’이 지배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소설 전반부에서 드러나는 ‘빨치산/빨갱이’를 분열시켜내는 모험은 반공 이념 너머를 상상하게 하는 서사적 모험을 생각해 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빨치산이 ‘빨갱이’로 다시 통합되는 과정에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동시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습합되어 있다.

『지리산』이 연재되고 출판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해방전후사’를 둘러싸고 진행된 1970-80년대의 심연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첫번째는 1970년대의 시대의 동요 속에서 ‘빨치산’ 표상을 분열시켜 내기도 하지만 이내 반공주의 맥락 속에 통합하는 과정, 두 번째는 역사와 공동체의 가치를 무감하게 지워낸 채 자본주의 체제 이념으로 빨치산의 삶을 실패한 삶으로 평가하는 부적절한 전유가 그것이다. 연재본과 증보본에서 ‘빨치산’ 표상은 반복되지만 그 차이가 분명하다. 연재본에서는 ‘빨치산’을 더 나은 국가를 상상하며 기투하는 청년의 삶으로 재현한다면, 증보본에서는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채 ‘빨치산’ 표상을 반공주의 맥락 정도로만 전유할 뿐이다. 다시 말해, 『지리산』은 반공 체제의 중심에서 이를 동요시키는 힘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결과적으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그대

로 추인하는 동시에 1980년대 자본주의적 욕망의 논리 속에서 ‘역사’와 ‘이념’의 문제를 낡은 방식으로 봉합해 버린다.

더욱이 출판 시기나 서사의 동력을 고려할 때 ‘증보’의 이유가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된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6,7권에서 보이는 주제의식의 급격한 변화는 ‘1980년대의 박태영’들을 향한 기성 세대의 시선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 핵심에 반공주의 이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자기계발 논리가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다. 1980년대를 경유하며 역사의식과 공동체를 성찰하는 흐름도 강력해졌지만 이와 동시에 그 흐름에 역행하는 성공하는 개인의 삶의 모델이 가치판단의 근거로 등장하는 것은 ‘1980년대’를 세세하게 살피야 하는 이유이다. 이병주의 『지리산』은 ‘해방전후사’의 역사를 다루면서 동시에 1970-80년대의 심연을 가로지르는 반공/자본주의의 이념을 ‘역사’ 속에 투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병주, 『지리산』 1-7, 한길사, 2009.
이병주, 『지리산』 1-7, 기린원, 1985.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천지』, 『세대』

2. 논문과 단행본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이 태, 『남부군』 상·하, 두레, 2014.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2004.
박명림, 『태백산맥, 80년대 그리고 문학의 역사』,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1991.
강심호, 『이병주 소설 연구 - 학병세대의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7권, 2002, 187-206쪽.
김복순, 『지식인 빨치산의 계보와 『지리산』』, 『인문과학연구논총』 22,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35-55쪽
김성환, 『식민지를 가로지르는 1960년대 글쓰기의 한 양식-식민지 경험과 식민 이후의 『관부연락선』』, 『한국현대문학연구』 46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301-344쪽.
김외곤, 『이병주 문학과 학병 세대의 의식구조』, 『지역문화연구』 12호, 2005, 9-33쪽.
김윤식, 『지리산의 사상-이병주의 《지리산》론』, 『문학사와 비평』 1집, 문학사와비평학회, 1991, 233-257쪽.
김종희, 『이병주 문학의 역사적 고찰-장편소설 『관부연락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7호, 한국문학회, 2011, 123-144쪽.
김지미, 『1980년대를 '기억'하는 스토리텔링의 전략』, 『대중서사연구』, 20(3), 대중서사학회, 2014, 7-40쪽.
류동규, 『65년 체제 성립기의 학병 서사-『관부연락선』 읽기』, 『어문학』 130호, 한국어문학회, 2015, 133-157쪽.
박중렬, 『실록소설로서의 이병주의 『지리산』론』, 『현대문학이론연구』 2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173-191쪽.
손혜숙, 『학병의 기억과 서사-이병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6집, 우리문학회, 2020, 271-306쪽.

- 이광욱, 『중립불가능의 시대와 회색의 좌표－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지리산〉에 나타난 지식의 표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4호, 민족문화연구원, 2019, 639-679쪽.
- 이상록, 『1980년대 중산층 담론과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확산』, 『사학연구』 130, 한국사학회, 2018, 275-334쪽.
- 이선아, 『빨치산 영화, 지워진 역사의 불완전한 복원시도』, 『내일을 여는 역사』 36,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09, 246-257쪽.
- 이혜령, 『빨치산과 친일파』, 『대동문화연구』 100집, 대동문화연구원, 454-456쪽.
- 정찬영,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 『지리산』론』, 『문창어문논집』 36권, 문창어문학회, 1999, 303-336쪽.
- 정창훈, 『우애의 서사와 기억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52집, 인문과학연구소, 2018, 197-241쪽.
- 정호웅, 『이병주 문학과 학병 체험』, 『한중인문학연구』 41집, 한중인문학회, 2013, 57-78쪽.

Abstract

How did 'Partisan' become 'The red':
The impossibility of pain-representation in the 1970s-1980s
- Focusing on Lee Byung-Ju's 『Jirisan』

Park, Suk-Ja(Sogang University)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evaluations on 『Jirisan』 (Lee Byeong-ju) are bisected. Some evaluate it as a novel of authentic records which reproduces the history before and after the emancipation objectively while others say it takes advantage of anti-communistic ideology. This study analyzes that difference is resulted not from the distinction of perspectives but from cracks in the text. This is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Jirisan』's publication. 『Jirisan』 was published serially in 『Sedae』 from 1972, and then, part of the manuscript was published in 1978 and the whole edition published in a series came to be republished in 1981. After that, in 1981 and 1985, part of the follow-up story was printed on the magazine, and then, with the memoirs of those two years as materials, the sixth and seventh volumes were again published through 'revision'. In other words, the publication of 『Jirisan』 is divided into that of the edition published in a series and that of the edition published in 1985 including the contents of revision. The theme of the work, 『Jirisan』 differs according to the point of its completion you may think of. This researcher pays attention to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s between the contents up to the fifth volume and those of the sixth and seventh volumes. Particularly, his evaluation on 'partisans' seems to have changed. In the edition published in a series, he extended 'partisans' into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under the Revitalizing Reforms system and adopted the representation of 'partisans' three-dimensionally whereas in the sixth and seventh volumes, he reproduced 'partisans' as beings that were the 'doctrinaire' and 'vicious' 'Reds' and had to be punished. In brief, with 『Jirisan』, he represented 'partisans' in the background of history before and after the emancipation and segmented the discourse, representation and ideology of the Cold War system, but in the process of revision,

he stitched up ‘partisans’ as beings that were evil and losers. Consequently, with 『Jirisan』, he revealed the process of division and contention that proceeded around anti-communism/capitalism within the abyss of the 1970’s to 80’s and reproduced ‘partisans’ as beings that were either ‘hostile (the Reds)’ or ‘unknown (losers)

(Keywords: Korean History after Liberation, Jirisan, Partisan, the Reds, Korean War, Anti Communism, Nambugun, Momoir, Homo Sacer)

논문투고일 : 2021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1년 6월 4일

수정완료일 :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14일